

국힘 “민주, 3월 1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는 방탄”

“방패막이 역할에만 몰두” 맹비난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처리 압박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관련, 오는 27일 본회의 처리를 압박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방탄용’이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월 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 그건 명백히 방탄이란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임시국회를 (3월)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사이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 판단에 달린 것이지만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에 비춰보면 영장 발부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것”이라며 “야당 대표라고 해서 영장 심사조차 못 하게 한다면 그 뒷담화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민주당을 가리켜 “당력을 총동원해 중요범죄의자 이 대표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그야말로 공방이길 포기한 형태”라며 “169석 전체가 나서서 이재명 방탄을 벌이는 사이 경제와 민생이고 모든 것이 ‘이재명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지지자들을 인

계절선 식의 방패막이로 삼아 민주당을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제 이성을 되찾고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고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려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이재명 사당’ 늪에서 벗어나 제1야당으로서, 공당으로서 진짜 일하는 국회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에서도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껴 점점 이탈표가 늘고 결국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라 전망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 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는 얘기가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는 공공연하다”며 “적어도 3번 이상 새로운 혐의의 체포동의안이 나오는데 찬성하는 표가 계속 늘어날 거고 최종적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정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중도층이 빠져나가고, 호남 빼고는 모두 지금 빠져나가고 있지 않느냐”라며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다시 부결할 수 있을까, 그때도 또 부결하게 되면 그야말로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황교안·안철수·천하람·김기현 당대표 후보 등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21일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엑스포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하람 “결선투표 가면 千-安 시너지 효과 분명히 나온다”

“김기현 후보 지지율은 모래성”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21일 판세가 김기현 후보로 기울었다는 분석에 대해 “김 후보의 지지율은 모래성”이라고 일축했다.

천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후보의 지지율 흐름과 관련해 “어렵사리 장제원 의원과 대통령실에서 살아남은 모래성 위를 황교안, 천하람, 안철수가 밟고 지나가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게다가 김기현 후보의 제일 큰 적은 본인이다. 본인 발언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는 특히 전날 열린 2차 TV토론에서 김

후보가 자신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발언을 두고 ‘바이든’으로 들리는지, ‘날리면’으로 들리는지를 질문한 것을 두고 “김 후보의 자책골”이라고 평했다.

그는 “김 후보가 당원 100%(투표)라는데 너무 뜻밖이 있는 것 같다. 내가 선명한 ‘날리면 후보’라는 것을 어필하려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큰 패착이다. 당원들은 이 이슈가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실에 있는 수많은 분도 이슈가 재점화되는 것을 불편해할 것”이라며 “어제 토론회가 끝나고 김기현 후보가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비교했다.

천 후보는 이어 “(김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사석에서도 굉장히 냉랭하다”며 “김 후보의 관점에

서 나나 안 후보가 본인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보니까 우리끼리는 크게 사감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 황 후보를 이해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주장했다. 황 후보가 김 후보의 ‘울산방’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인 상황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결선투표 이전에 단일화는 거의 물건너갔고 단일화를 하더라도 표가 얼마나 갈까”라고 반문했다.

천 후보는 향후 판세에 대해 “김 후보가 독자적으로 과반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고, 천하람·안철수의 표를 합친다고 하면 김 후보의 표랑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결선으로 갔을 때 천하람·안철수는 컨벤션 효과나 시너지가 분명히 나온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농어민 전기요금 지원책 마련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농해수위 정부 대책 요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농·어업인 전기요금 부담완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업인 전기요금 지원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농어민의 전기요금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농·어업 생산비 절감 및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일본이 자국 이익을 위해 하는 것에 대해 응징한다면 철저한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한다고 해도 이길 수 있을 때 하는 게 맞다”라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당위성을 심어주는 결과가 나올까 걱정이다. 압박 자료를 수집하고 해외 사례를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두 달 앞인데 국민 생명을 누가 지키는가. 국제원자력기구(IAEA)만 믿으면 되는가”라며 “국민 생명을 IAEA에 맡기고 국방은 미군에 맡기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국내 연구기관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안을 기초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방출된 삼중수소는 10년 뒤 국내 해역에 미미한 수준으로 희석돼 유입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일본이 제시한 값으로 시뮬레이션한 것이니 가해국의 발표만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며 “일본의 기대대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의 방류 명분만 늘어주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지난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출된 삼중수소가 10년 뒤 국내 해역에 0.001Bq/m³ 농도로 희석돼 유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0.001Bq/m³는 현재 국내 해역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 172Bq/m³의 10만분의 1 수준으로, 현재 분석기기로는 검출되기 힘든 정도의 농도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강성 기득권 노조 불법행위로 근로자들 일자리 잃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년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의 불법행위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관계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받은 뒤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말한 것의 연장선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MZ 세대가 공정과 투명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본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한 것 과도 일맥상통한다.

기득권을 가진 대기업 노조의 횡포 때문에 양질

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정한 경쟁은 최근 윤 대통령 메시지에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로 꼽힌다. MZ 세대의 믿음을 공략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7일 MZ 공무원들과 대화에서 “노조 간부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 장사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해서는 안 된다”고 운을 뗐다. 지난 17일에는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히 단속하라”며 무주택 청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체육 비전’을 밝히면서까지 “스포츠 산업을 국

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미래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청년층을 언급했다.

정부는 양대 노조의 기득권 해파를 기치로 이날 공식 출범하는 MZ 노조(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활동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차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비윤 후보들이 청년 지지층을 결집하려 시도하는 데 대한 반작용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대통령실은 이런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핵심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정과 상식, 국익과 실용은 윤석열 정부 국정 의 기본 지표”라며 “단발성이 아니고 5년 내내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 OPEN

2023년 2월 1일, SGI서울보증 광주금남로지점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36 교보빌딩 7층 | ☎ 062-521-0041

꿈을 보증하다 희망을 더하다

SGI서울보증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전원 리모델링,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